

## 치 사

꽃향 그대로 우리의 삶을 널리 향기롭게 하더니, 이내 푸른 신록이 마음까지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한 송이 꽃이 세상에 두루 봄을 알린다’는 옛 스님들의 말씀처럼, 산천초목 모두가 부처의 형상이고, 발 딛는 곳곳이 정토와 다름이 없는 듯합니다.

신심과 신행의 감동을 전하는 지금의 순간 또한, 밝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기쁨과 참회의 시간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육바라미를 실천해 온 신심 장한 불자를 만나는 환희의 시간이며, 스스로의 삶을 비추어보는 성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로써 정토를 알아가는 맑은 마음을 이루게 합니다.

신행수기는 불자로서의 일상과 마음을 진솔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인욕과 자비, 그리고 불퇴전의 의미를 알아가고, 다시 그 마음 그대로 소탈하고 친숙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에 대한 스스로의 감동이 없다면 남에게도 감화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써내려간 신행과 그 마음가짐은 불자의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참된 일이자, 이 시대의 보살행을 여러 도반에게 나누는 모범이라 할 것입니다.

남에 대한 배려, 사람에 대한 존중, 사람과 사람 사이의 흐르는 정,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너무도 소중한 마음들입니다. 사회가 편리해지고 발전할수록 소홀하고 등한시 해온 가치들이기에, 세상은 발전해 가는데도 불안과 걱정이 더 쌓여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급변하는 시대인 만큼 세상의 흐름에 결코 불제자로서의 삶이 뒤쳐져서는 안될 것이며,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수승한 정신의 삶과 실천으로 스스로는 물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밝은 빛이 되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올바른 가르침을 바탕으로 두고, 진솔한 실천과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으며 세상을 감동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올해의 신행수기 또한 모두에게 꽃향기로 전해집니다. 감동으로 전해져 마음마다 희망의 든든함으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장한 신심으로 묵묵히 불자의 길을 걸어온 한 송이 꽃이,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만큼 푸른 신통으로 마음깊이 감동과 용기로 전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축하와 감동은 세상 곳곳이 이미 정토로 장엄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깊은 인연이 되어줄 것입니다. 제4회 신행수기로 서로에게 감동을 전해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고마운 인사를 드리며, 공모를 거듭할수록 진솔한 감동은 깊어지고 희망의 소식을 더 널리 알려가는 법보신문과 불교방송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함께하신 모든 인연들이 불자로서의 자긍심과 불퇴전의 용기를 갖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주길 바라며, 감동을 나누는 오늘이 사회와 이웃의 행복과 희망의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61년 5월3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